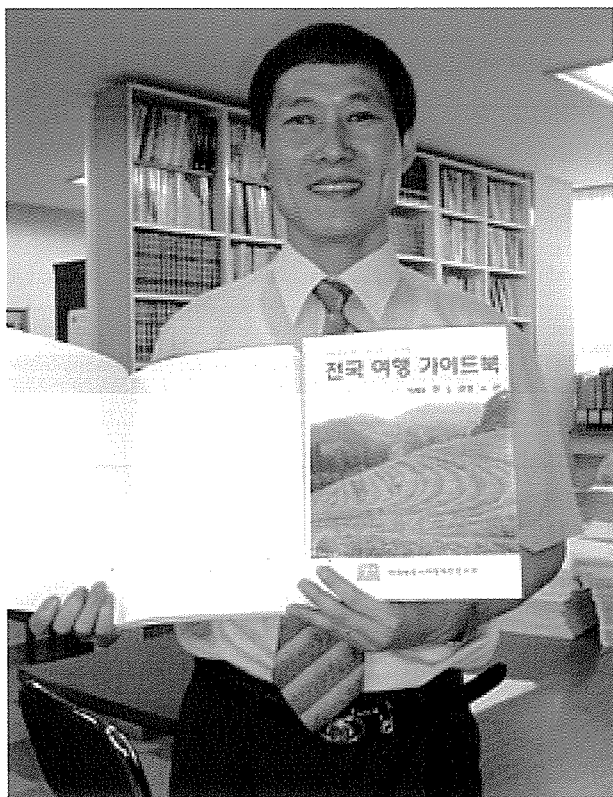


## “이제 여행지의 장관을 느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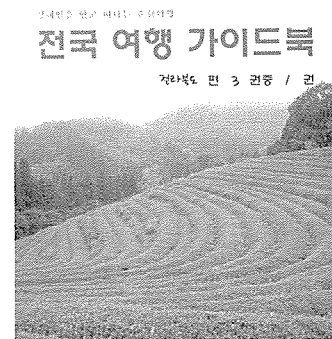
### - 시각장애인 ‘점자 여행 가이드북’ 발간 -



설립한 송경태(43.시각장애 1급.전주시 중화산동)씨가 이번에는 점자로 된 여행가이드북을 만들어 여행이 어렵고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 여행가이드북은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를 각 도마다 3-4권씩 총 32권으로 구성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여행지의 장관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전북 고창 선운사의 경우 “꽃이 만개하는 봄




전라북도시각장애인도서관

현장을 묘사하여 그 느낌을 바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북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간 하루 15명 내외, 연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국여행 정보를 손길로 입력, 점자로 편집,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점자판 전국 여행 가이드북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건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송관장은 전했다.

현재 100질 3천200권이 제작되어 전국의 시각장애인 도서관 및 지방자치단체, 희망 시각장애인 등에 무료로 배포되었으며 녹음도서 및 CD도서로도 제작 중이다.

송 관장은 “주5일제로 여가문화가 활발해지는 시기에 맞춰 시각장애인도 직접 여행을 다닐 수 있고 간접적으로도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점자 여행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들이 기존에는 녹음도서나 전화 등의 청각매체에 의존해 정보에 접근하던 데 비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여행 정보를 문자로 읽어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또 거동 자체가 힘든 시각장애인들도 여행지의 정경이 담긴 가이드북을 통해 그곳의 정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전주시 인후동에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북시각장애인 도서관을

이런 사찰 뒤로 꽃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장관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강원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은 “관동팔경의 하나인 경포대와 아름다운 석호인 경포와 함께 해변에 소나무 숲이 울창해 풍치가 그윽하고 여름철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묘사되어 있다.

또 관광지 주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관리자 연락처도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그래픽 점자 프린터를 이용한 ‘촉각 지도’가 실려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림 그리듯이